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홍 은 실

한양대학교 / 대학원생

하 정 희†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재학 중인 중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 대처전략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은 보였으나 제안한 연구모형 내에서 둘 간의 유의한 직접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의 주요 변인들 간 경로 검증에서 한층 더 나아가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부터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 사회적 문제해결력

* 본 연구는 홍은실(2021)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 02-2220-2613, E-mail : hajung366@hanyang.ac.kr

인간은 새로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한호순, 2016).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로 신체·인지·정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Erikson, 1968), 이 시기의 경험들은 성장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송현심, 성승연, 2015). 특히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 초기단계로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사춘기 성장이 가속화되는 반면(강차연, 손승아, 안경숙, 윤지영, 2010),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미숙한 시기로 적절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이화진, 2017).

사회적 문제해결력이란, 문제 상황에서 적응적, 효율적 방법을 찾아보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종합적인 능력으로(D'Zurilla, & Nezu, 1982; D'Zurilla & Nezu, 1990; D'Zurilla, & Nezu, 2008) 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만들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D'Zurilla & Goldfried, 1971).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의 문제해결력이란 문제의 핵심 상황에 접근하고, 대안을 생각하여 처리하는 가운데 문제의 영향력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Jo, Song & Lee, 2007).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보고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저하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미경, 이근매, 2018).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높은 중·고등학생들은 자살경향성이나 우울증이 낮으며(Reinecke, DuBois & Schultz,

2001), 가정문제, 학교생활, 자신의 문제,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경, 2004).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함을 시사한다(정선영, 김도현, 김래영, 2019).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며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은 각 집단의 독특한 발달과제가 존재하며(이정미, 2011), 특히 중학생은 어린이인 초등생과 청소년의 위치를 인정받는 고등학생 사이의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초등생이나 고등학생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하연희, 2001). 이 시기는 자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과 혼란, 독립적 인간으로서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는 압박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한상영, 2005), 자아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영인, 2011). 이러한 중학생 시기에 형성한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일생을 통하여 적응기제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한상철, 2008), 이 시기동안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반항·일탈 등 여러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이화진, 2017). 이렇듯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중요성 및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부재가 초래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중학생 시기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습득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위한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배우진, 2008). 이에 중학생들이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훈련 및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이경희, 2014).

중·고등학생 시기의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문제해결력이 낮은 중·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연구해 왔으나, 점차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측변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이성엽, 2019; 이현주, 2011). 최근 연구자들은 다양한 환경적 변인 중 심리적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배효숙, 홍혜영, 2017) 이와 관련하여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유림, 강지현, 2014; 김이슬, 홍혜영, 2016; 서유리, 2019; 이혜진, 2002).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로 자녀의 욕구를 존중하기보다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주리아, 하정희, 2019). 또한,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부모의 성패로 동일시하여(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자녀의 여러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자녀가 문제해결력을 증가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유림, 강지현, 2014).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은 중·고등학생의 독립성 증가나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을 저해하며,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왜곡하거나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다(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육체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박성연, 이은경, 2011),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배효숙, 홍혜영, 2017).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하

는 등(김영린, 이기학, 2011) 의존과 독립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이진고, 1997),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다(신상수, 2008). 이에 중학생 시기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상정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연구(정상화, 2020) 이외에 이들 두 변인사이의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두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행동적 대처방법으로서의 회피중심 대처방식간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등학생 시기는 인지적 성숙으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시기로(Crozier & Burnham, 1990) 자신의 이미지가 또래에게 적절하게 보이는지에 주의하게 되며(Hewitt et al., 2011),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있다(Flett, Hewitt, Oliver, & Macdonald, 2002; Stoeber & Childs, 201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욕구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Hewitt et al., 2003).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 행동의 대인 관계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질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이동귀, 서해나, 2010).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데(배효숙, 2016),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들의 경우 비판적·성취 지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게 된다(Blatt, 1995). 그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며(하정희, 2017),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들의 완벽주의(김희영, 박성연, 2008; 엄현정, 민경화, 2017; Craddock, Church, & Sands, 2009;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혹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보고하고 있다.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나 사회불안, 섭식장애 등의 정신 병리와 관련지어 연구되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Burns & Beck, 1978; Pacht, 1984),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행동, 인지적 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엄정빈, 2015). Hobden과 Pliner(1995)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자 한다는 점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하여 타인이 비현실

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운다고 여기며, 이를 성취해야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므로, 완벽주의적인 자기제시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Flett, Besser & Hewitt, 201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완벽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데(Hewitt & Flett, 1991),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불완전함 은폐노력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하정희, 2010). 이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때,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엄정빈, 2015; 임효순, 2004).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대처전략으로 주로 회피, 정서적인 대처방식,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문선, 2003; 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중학생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클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대처행동을 취하게 된다(이은주, 2017).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경우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서적,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illings & Moos, 1984). 특히,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 단계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장호연, 장

진이, 2017), 이 시기의 대처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Patterson & McCubbin, 1987).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 그와 관련된 정서를 피하려는 것(Billings & Moos, 1984),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 없는 일에 집중하며 스트레스 자극을 피하는 방식(Endler & Parker, 1990)을 말한다.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데,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이은주, 201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회피적·소극적·공격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부영희, 2000;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오윤심, 최은영, 2012),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자녀는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같은 소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은주, 2017).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로 구분되며, 소극적 대처는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사고 대처로 나뉜다(유미옥, 2018). Folkman과 Lazarus(1980)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의 유형 중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한다고 하였고, 박선영(2015)은 정서완화 대처는 스트레스를 정서적 반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로 스트레스 사건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대처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을 피하거나 무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회피중심 대처전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회피중심 대처와 관련성이 높은 정서 중심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련성에서, 윤수영(2001)의 연구에 따르면 소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문제 해결력이 낮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사건을 회피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 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중심 대처와 회피중심 대처의 관련성을 근거로 정서중심 대처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피중심 대처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와 대처전략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의 경우 사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보고된다.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과도한 기준을 부과한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Stoerber & Rennert, 2008).

이와 관련하여 Appleton, Hall과 Hill(2009)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심지아, 2018; 김정주, 홍상환, 2017; 박희락,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관계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관계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에서 중학생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에서 중학생 자녀의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에서 중학생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지는 중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담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중학생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들에게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생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의 대인관계 측면에 대한 연구 확장을 시도해 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회피중심 대처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대처방법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중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있어 좀 더 폭넓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간의 관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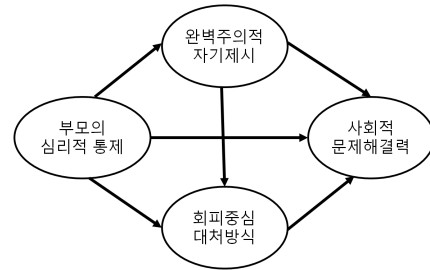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간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1개월간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ex. 다수의 교회 및 학원에 협조 요청) 전국에 있는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양식에 포함된 안내문을 통하여 설문결과 및 개인정보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및 연구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응답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총 304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284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외적타당도의 향상을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연구를 국한하였다. 이에 수도권 이외 지역 51부를 추가로 제외하고 총 2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9명(51.1%), 여자 114명(48.9%) 이었고, 학년은 3학년 93명(39.9%), 2학년 89명(38.2%), 1학년 51명(21.9%)이었다. 지역은 서울 158명(67.8%), 경기도 74명(31.8%), 인천 1명(0.4%)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CS-YSR)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를 최명진(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자각하는 정도를 보고한다. 총 16개 문항으로, 6개의 하위유형 ‘자기표현 제한’, ‘비난’, ‘감정 불인정’, ‘죄책감 유발’, ‘불안정한 감정기복’, ‘애정 철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기표현 제한’(예: 나의 부모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십니다.), ‘감정 불인정’(예: 나의 부모님은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죄책감 유발’(예: 나의 부모님은 나를 키우시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애정철회’(예: 나의 부모님은 내가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 하실 것입니다.), ‘불안정한 감정기복’(예: 나의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등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심리적 통제로 지각함을 뜻한다. 김하얀(2017)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2였으며, ‘자기표현제한’ .88, ‘비난’ .74, ‘감정불인정’ .81, ‘죄책감 유발’ .80, ‘불안정한 감정기복’ .86, ‘애정철회’ .86으로 나타났다.

다. 본 연구의 전체신뢰도는 .92이며, ‘자기표현제한’ .90, ‘비난’ .70, ‘감정불인정’ .63, ‘죄책감 유발’ .75, ‘불안정한 감정기복’ .74, ‘애정철회’ .85이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SPS-K)

Hewitt 등(2003)에 의해 개발되고 하정희(2011)에 의해 한국판으로 재구성되고 타당화를 거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이며, 세 가지 하위차원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예: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면 끄적할 것이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예: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로 구성된다.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정희(2011)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5,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8,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75,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75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92,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83,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82 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POS)

D’zurilla와 Nezu(1990)에 의해 고안된 척도를 김영미(1995)가 번안하고, 한호순(2016)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는 문제해결기술 척도와 문제지향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제지향 척도가 문제해결기술 척도보다 더 의미 있다는 주장(김화자, 1998)

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지향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문제지향 척도는 3개의 하위차원으로 총 30문항이며, 한호순(2016)의 연구에서는 한 문항을 제외한 29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한호순(2016)의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적인 신뢰도는 .92였으며, 각각 ‘인지’ .70, ‘정서’ .88, ‘행동’ .81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이며, ‘인지’ .72, ‘정서’ .86, ‘행동’ .83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검사 척도(CSI)

Amirkhan(1990)이 개발, 신혜진(2002)이 변안한 대처전략검사 척도(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사용하였다. 대처전략검사는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검사로 회피중심 대처, 문제중심 대처, 관계중심 대처의 총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 중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점 Likert척도로 총점이 높아질수록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신혜진(2002)의 연구 전체 신뢰도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와 AMOS 23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문항의 반응경향성 파악을 위해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대해 문항꾸러미 작업을 한 뒤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와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하고 이어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하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간주한다(우종필, 2015). 또한,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1000번으로 설정하였으며 팬텀변인을 통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 조건 충족 여부 및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살펴보았다. 표 1과 같이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2 및 7을 넘지 않았으므로(Byrne, 2001)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상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상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회피중심 대처방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N=233)

	1	1-1	1-2	1-3	1-4	1-5	1-6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1																			
1-1. 자기표현제한	.73**	1																		
1-2. 감정불인정	.74**	.53**	1																	
1-3. 비난	.84**	.47**	.55**	1																
1-4. 죄책감유발	.78**	.44**	.51**	.59**	1															
1-5. 애정철회	.85**	.56**	.50**	.73**	.57**	1														
1-6. 불안정한 감정기복	.84**	.54**	.51**	.72**	.53**	.74**	1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48**	.28**	.43**	.44**	.40**	.39**	.36**	1												
2-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49**	.29**	.44**	.43**	.40**	.40**	.37**	.88**	1											
2-2. 불완전함은폐 노력_행동	.28**	.15**	.23**	.27**	.25**	.24**	.19**	.83**	.56**	1										
2-3. 불완전함은폐 노력_언어	.47**	.29**	.43**	.43**	.37**	.35**	.36**	.86**	.67**	.57**	1									
3. 회피중심 대처방식	.49**	.38**	.33**	.46**	.36**	.37**	.42**	.53**	.47**	.42**	.46**	1								
3-1. 회피1	.39**	.33**	.25**	.38**	.29**	.31**	.31**	.41**	.37**	.31**	.39**	.85**	1							
3-2. 회피2	.39**	.33**	.25**	.38**	.29**	.31**	.31**	.41**	.37**	.31**	.39**	.85**	1**	1						
3-3. 회피3	.40**	.25**	.29**	.37**	.31**	.34**	.35**	.45**	.41**	.37**	.38**	.82**	.55**	.55**	1					
4. 사회적 문제해결력	-.46**	-.34**	-.31**	-.45**	-.30**	-.41**	-.41**	-.54**	-.42**	-.48**	-.50**	-.60**	-.51**	-.51**	-.42**	1				
4-1. 인지	-.38**	-.26**	-.26**	-.37**	-.22**	-.36**	-.34**	-.45**	-.33**	-.39**	-.43**	-.40**	-.32**	-.32**	-.29**	.86**	1			
4-2. 정서	-.46**	-.33**	-.29**	-.44**	-.31**	-.43**	-.40**	-.58**	-.48**	-.53**	-.49**	-.64**	-.56**	-.56**	-.46**	.93**	.72**	1		
4-3. 행동	-.40**	-.33**	-.29**	-.40**	-.27**	-.31**	-.35**	-.42**	-.30**	-.37**	-.42**	-.55**	-.49**	-.49**	-.36**	.90**	.63**	.77**	1	
평균	1.96	1.63	2.45	1.88	2.34	1.71	1.78	4.35	3.93	5.13	3.98	1.75	1.74	1.74	1.83	3.35	3.27	3.38	3.41	
표준편차	0.76	0.85	0.91	0.87	1.12	0.96	1.01	1.15	1.44	1.34	1.23	0.40	0.45	0.45	0.53	0.68	0.67	0.82	0.77	
왜도	1.03	1.68	0.26	1.27	0.63	1.59	1.26	-0.50	-0.11	-0.69	-0.25	0.36	0.41	0.41	0.22	-0.21	-0.05	-0.32	-0.27	
첨도	0.39	2.92	-0.66	1.32	-0.54	1.89	0.64	0.01	-0.52	-0.02	-0.19	0.05	-0.10	-0.10	-0.64	-0.22	-0.15	-0.20	-0.38	

주. **p<.01

식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표준화계수는 그림 2와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모형 검증결과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잠재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81.974(p<.001)$, $df=84$, TLI=.940, CFI=.952, RMSEA=.071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 모형 검증

변인간의 매개모형 및 이중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81.974(p<.001)$, $df=84$, TLI=.940, CFI=.952, RMSEA=.071로 나타나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사이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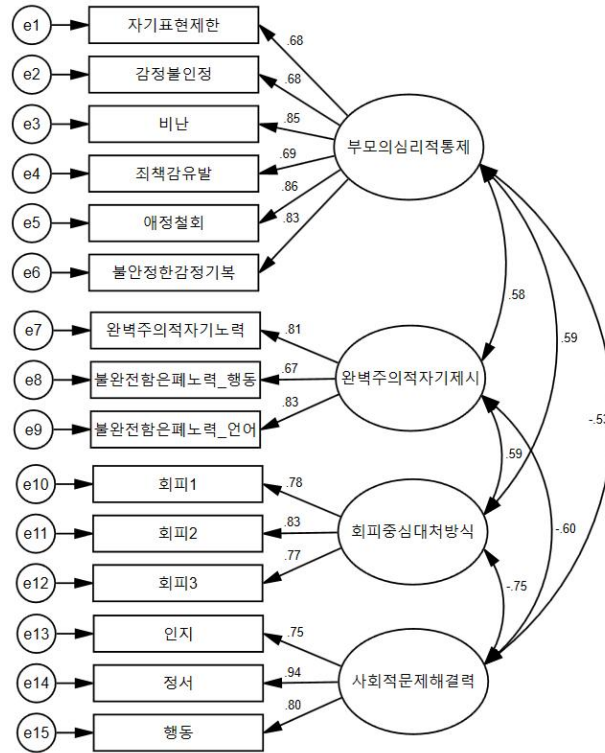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수정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 연구모형과 기존의 연구 모형의 적합도

를 비교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으며, 수정 구조모형의 자유도가 1만큼 좋아졌으므로 수정 구조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정

표 2. 연구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125	.584	.158	7.138***
부모의 심리적 통제 → 회피중심 대처방식	.224	.368	.053	4.22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17	.372	.028	4.19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97	-.226	.034	-2.819**
회피중심 대처방식 → 사회적 문제해결력	-.791	-.583	.124	-6.370***
부모의 심리적통제	-.049	-.059	.061	-.801

주.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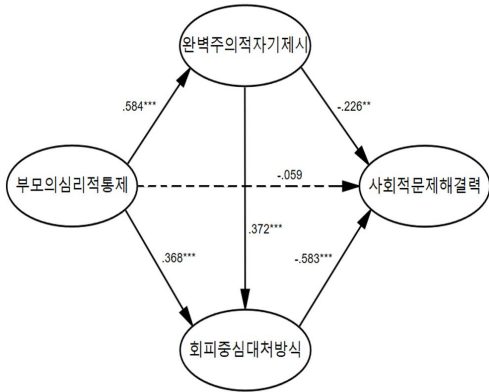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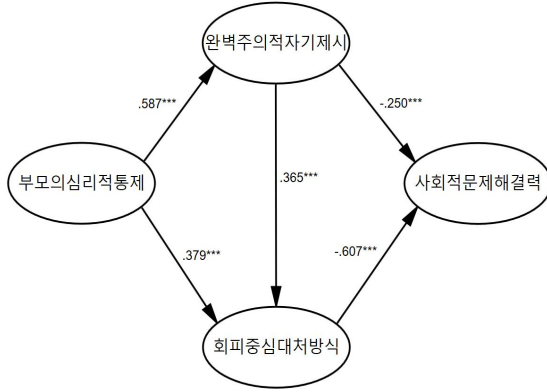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검증결과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01$

표 3. 초기구조모형과 수정 구조모형의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81.974***	84	.940	.952	.071
수정 연구모형	182.587***	85	.941	.952	.070
Δ	.613	1	.001	.000	.001

주. *** $p < .001$

표 4. 최종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로	B	β	S.E	t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129	.587	.157	7.176***
부모의 심리적 통제 → 회피중심 대처방식	0.229	.379	.053	4.36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0.115	.365	.028	4.13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사회적 문제해결력	-0.107	-.250	.032	-3.314***
회피중심 대처방식	-0.823	-.607	.119	-6.936***

주. *** $p < .001$

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잠재변인들 사이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전체 매개효과 검증

최종 모형으로 각 변인간의 직접적인 경로

표 5. 최종 구조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부모의 심리적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587** (.483 ~ .668)	-	.587** (.483 ~ .66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회피중심 대처방식	.365** (.116 ~ .566)	-	.365** (.116 ~ .566)
회피중심 대처방식	→	사회적 문제해결력	-.607** (-.777 ~ -.428)	-	-.607** (-.777 ~ -.428)
부모의 심리적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379** (.232 ~ .517)	.214** (.076 ~ .350)	.593** (.459 ~ .699)
부모의 심 리적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	-	-.507** (-.597 ~ -.423)	-.507** (-.597 ~ -.42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회피중심 대처방식	-.250** (-.428 ~ -.058)	-.222** (-.389 ~ -.089)	-.472** (-.609 ~ -.268)

주. 숫자는 표준화계수, ** $p < .01$

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Shrout와 Bolger (2002)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1000개의 부스트랩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95%신뢰구간 가운데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기에(김수영,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경유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별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개별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팬텀변수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개별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스트랩 표본 1000개를 모수추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팬텀변수 이용 시 간접효과 크기는 비표준화 계수로만 계산되므로(배병렬, 2017), 각 개별매개효과를 비표준화 계수로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표 6.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심리적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사회적 문제해결력	-.120**	.053	-.241	-.033
부모의 심리적통제	→ 회피중심 대처방식 → 사회적 문제해결력	-.189**	.051	-.313	-.110
부모의 심리적통제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회피중심 대처방식 → 사회적 문제해결력	-.107**	.042	-.209	-.040

주. ** $p < .01$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 = -.120$, $CI = -.241 \sim -.033$, $p < .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 = -.189$, $CI = -.313 \sim -.110$, $p < .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중학생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는 간접 효과 경로($B = -.107$, $CI = -.209 \sim -.040$, $p < .01$)는 유의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증가함에 따라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개별 매개효과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모든 주요변인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우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아진다는 연구(류아영 등,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높았다는 연구(부영희, 2000;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오운심, 최은영, 2012; 이은주, 2017)들과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완벽하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며(하정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낮춘다는 선행연구(김유림, 강지현, 2014; 이혜진,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들의 경우 대상자가 대학생이었다는 점과 연구에 사용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가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부터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를 고려할 때, 중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체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중학생 자녀의 부정적인 지각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아울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성이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심지아, 2018; 김정주, 홍상황, 2017; 박희락, 2009; Appleton et al, 2009)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엄정빈, 2015; 임효순, 2004)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즉, 회피중심적으로 대처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발한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등의 회피 중심적 대처를 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또한,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관련이 높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윤수영,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주요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및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관계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학생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김희영, 박성연, 2008; 주영경,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심화시킨다는 연구(류아영 등,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엄정빈, 2015; 임효순,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하여 더욱 잘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 신념을 발달시키게 되며, 부모가 요구하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류아영 등, 2014; Soenens et al., 2008). 또한, 완벽주의 성향이 타인으로부터 부과될 경우 문제해결 과정에서 결과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임효순, 2004).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간의 관계에서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회

피적·공격적·소극적 대처행동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연구(부영희, 2000;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오윤심, 최은영, 2012)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이 가져다주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정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연구결과(윤수영, 2001)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이중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그 원인이 되는 심리 내적인 구조를 알아보고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매개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정도에 따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였다. 이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정도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가 높을수록 중학생 자녀가 자신을 완벽하게 제시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중학생은 자기를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높지만, 그만큼 완벽한 인상을 나타낼 수 있는 효능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실수가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한다는 주장(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을 지지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 이러한 소극적 대처태도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윤수영, 2001)을 뒷받침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속에서 성장한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감추려는 태도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 대처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 상황에 직접 부딪히며 해결해보는 경험과 연습의 부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학습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내포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를 고려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한 경우가 드물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대상을 확장시켰다. 더불어, 고등학생과 구분된 중학생 시기의 발달과제를 고려하여 중학생 집단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

중심 대처방식의 이중매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매개변인의 중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질 경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고 상담에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현장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중학생 내담자에 대한 개입방법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중학생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을 때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때, 중학생들이 곧바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저하를 호소하는 중학생에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정도와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한 후, 중학생 내담자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한, 학교 상담현장 등 부모상담이 어려운 중학생 내담자의 경우 부모상담을 통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부모에 대한 개입 이외에도 중학생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자신의 불안 전함을 은폐하려는 경향성에 대해 이해하여 이를 완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사건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기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의 대인관계 측면에 대한 연구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회피중심 대처를 함께 살펴보는 행동적인 대처방법을 함께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로써 중학생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있어 심리적 접근 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으로도 폭넓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의 관련성 및 회피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변인간의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나 응답자의 82.1%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연구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일반화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가정하였는데, 이 두 가지 매개 변인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겪은 중학생들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저하를 호소하기까지의 단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 외의 중요한 변인들을 설정하여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중학생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측정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심리적 통제와 부모가 직접 보고한 심리적 통제에 대하여 비교하며 살펴본다면 좀 더 폭넓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손승아, 안경숙, 윤지영 (2010).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주)교문사.
- 김수영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영린, 이기학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성이 학교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125-143.
- 김영미 (1995). 문제해결 전략에 의한 문제의 분류 및 문제해결지도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유림, 강지현 (2014).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자이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4), 124.
- 김유정, 최수동, 김성민, 서경현 (2008). 부모양

- 육태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 간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6(3), 251-259.
- 김이슬, 홍혜영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53-75.
- 김정주, 홍상황 (2017).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처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8(4), 201-214.
- 김하얀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김화자 (1998).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 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70.
-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2(3), 135-155.
- 박경 (2004). 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2(2), 96-106.
- 박선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연, 이은경 (201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9-110.
-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정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 성숙의 예측.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배우진 (200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배효숙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배효숙, 홍혜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27-54
- 부영희 (2000).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성 지수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유리 (2019).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신상수 (2008). 가정환경과 진로성숙의 관계: 초 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차이. 석사 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신혜진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 심지아 (2018). 초기부적응도식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부적응 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엄정빈 (2015). 완벽주의 하위 유형이 사회적 문 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반성적 및 반추적 반응양식의 차별적 매개효과. 석사학위논 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엄현정, 민경화 (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1), 97-115.
- 오운심, 최은영 (2012).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 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대 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6, 15-29.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 나라.
- 유미옥 (2018).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 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 학기술학회 논문지, 19(3), 291-300.
- 윤수영 (2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완벽 주의 성향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와 의사소통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 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이동귀, 서해나 (201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성 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의 특성 비교. 상담학연구, 11(1), 91-110
- 이미경, 이근매 (2018).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 예측을 위한 사과 따는 사람 그림 검사 타당화 연구. 미술치료연구, 25(5), 647-669.
- 이성엽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 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영인 (2011). 중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이은주 (2017).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미 (2011).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진고 (1997). 중학생의 스트레스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화진 (2017).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 주대학교.
- 이현주 (2011).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자 녀 관계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 문, 경희대학교.
- 이혜진 (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에 따른 문제 사회적 해결능력에 관한 연 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효순 (2004).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완벽주 의 성향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 향. 석사학위논문, 여주대학교.

- 장호연, 장진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71-891.
- 정상화 (2020).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 논문, 칼빈대학교.
- 정선영, 김도현, 김래영 (2019).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1(3), 435-454.
- 주리아, 하정희 (2019).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0(1), 95-123.
- 주영경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 대학원.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최문선 (2003).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대처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하연희 (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정희 (2010).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21-239.
- 하정희 (201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121 - 1140.
- 하정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183-208
-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학생문제행동과 학교폭력: 분석과 대처방안. 제3차 KEDI-KAERA 교육정책 국제 심포지엄.
- 한상영 (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한상철 (2008).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호순 (2016). 청소년의 기질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5.
- Appleton, P. R., Hall, H. K., & Hill, A. P. (2009). Relations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elite male athle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4), 457-46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Blatt, S. J. (1995). Representational structures in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S. Toth. Rochester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Emotion,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Burns, D. D., & Beck, A. R. (1978).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of mood disorders. In J. P. Foreyt and D. P. Rathjen (Eds.) Cognitive behavior therapy (pp.109-134). New York: Plenum.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 Craddock, A. E., Church, W., & Sands, A. (2009). Family of origin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fectionism.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3), 136-144.
- Crozier, W. R., & Burnham, M. (1990). Age-rel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2), 179-185.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34-252.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4), 665-676.
- D'zurilla, T. J., & Goldfried, M. R. (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1), 107.
- D'zurilla, T. J., & Nezu, A. (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pp. 201-274). Academic Press.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2), 156.
- D'zurilla, T. J., & Nezu, A. M. (2008). 문제해결 요법: 임상적 개입에의 적극적 접근. 박권생, 최이순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Endler, N. S., & Parker, J. D.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44-854.
-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New York: Norton.
- Flett, G. L., Besser, A., & Hewitt, P. L. (2014).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s in depression : An analysis of validation seek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 community sample of young adults. *Psychiatry: Interpersonal & Biological Processes*, 77(1), 67-85.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acdonald, S.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Caelian, C., Papsdorf, M., Cassels, T. G., & Birch, S. (2011).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junior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23*(1), 125-142.
- Hobden, K., & Pliner, P. (1995). Self-handicapping and dimensions of perfectionism: Self-presentation vs Self-prote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4), 461-474.
- Jo, C. B., Song, A. Y., & Lee, S. H. (2007). Study for violence between parents exposure and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6*, 73-103.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atterson, J. M., & McCubbin, H. I. (1987).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2), 163-186.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Reinecke, M. A., DuBois, D. L., & Schultz, T. M. (2001). Social problem solving, mood, and suicidality among inpatient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5*(6), 743-75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8). Clarifying the link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Reciprocal versus unidirectional models. *Merrill-Palmer Quarterly, 54*(4), 411-444.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n interven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65-474.
- Stoeber, J., & Rennert, D. (2008). Perfectionism in school teachers: Relations with stress appraisals, coping styles, and burnout. *Anxiety, Stress, and Coping, 21*(1), 37-53.

Stoeber, J., & Childs, J. H. (2011). Perfectionism.
In R. J. R. Levesque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2053-2059). New York: Springer.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487-498.

원 고 접 수 일 : 2021. 03.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5. 06

게재결정일 : 2021. 05. 2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voidance Coping

Eun Shil Hong

Hanya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Jung Hee Ha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voidance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Participants were 284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the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th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Problem Orientation Scale, and Coping Strategy Indicator Scal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however,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dditionally, the mediating role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was confirmed. The mediating role of avoidance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was also confirmed. Finally, the double mediated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avoidance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was confirmed.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voidance coping,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